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초라한 대한민국의 행복 성적표

경영학과 6016**** 오*주

[목차]

I 서론

1. 행복에 대한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

II 본론

1. 현대인들이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 분석
 - ①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른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
 - ②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2. 경제적 번영과 행복의 실질적 연관성 분석
3. 행복지수가 높은 자본주의 국가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행복의 기준과 인식 비교
4.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의 개선 방안
 - ①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새로운 행복의 기준 필요성

III 결론

I. 서론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감정이다. 행복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만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논문에서는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행복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며 왜 현대인들이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볼 것이다(1장). 또한 경제적 번영과 행복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것이다(2장). 행복 지수가 높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며 특히 한국의 자본주의와 행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3장).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4장).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주

의가 현대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지나친 물질주의적 사고를 경계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 행복에 대한 현대인들의 일반적 견해

최근 한국의 청년층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며 살기 껍떡함을 토로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¹⁾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조어들이 만연해 있는 최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복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금전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은 최고의 사치품이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살기도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소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것이라는 허상이 널리 퍼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허상을 이루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은 점차 나중의 일로 미루게 되었고, 현재의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얻게 될 물질적 풍요를 떠올리며 불행한 하루하루를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점점 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불행한 하루를 미래를 위한 투자 또는 희생이라고 합리화하며 불행에 대해서 무뎠어지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II. 본론

1. 현대인들이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 분석

①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른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러한 허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을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지표로 드러나는 경제성장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로는 세계 11위를 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세계 28위를 하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²⁾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외환 위기 이후 살아남은 재벌 대기업들은 점점 그 덩치를 키워갔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

1)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대비되는 단어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어두운 미래상을 뜻한다.

2) 조계완, 「우린 왜 점점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한겨레 신문』 2016년 10월 16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5939.html, (2016. 12. 11. 최종 검색).

익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었고, 재벌 대기업들은 시장의 약탈자처럼 행동했다. 하청 단가를 후려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갔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불안정하게 몰아갔다.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중산층의 비중을 줄여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소수의 고소득층이 부를 독점하게 되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두 집단 간의 삶의 질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다. 2015년 기준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4% 수준이며 복지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한다.³⁾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노동의 시간과 강도는 심해졌다. 따라서 사람들은 힘든 노동에 행복이란 사치를 즐길 여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행복이란 감정은 점차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국가들 보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했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란 존재는 물질적 만족이 충족될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 정도일 뿐이다. 즉,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②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자본주의의 영향이 컸다. 급격한 자본주의의 성장 부작용으로 행복이 사치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이 미화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경쟁이 쉽게 치열해진다. 치열한 경쟁은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쟁이 심화된 자본주의는 인간을 매우 탐욕스럽게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며 사회에 이기심이 만연하도록 조장한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앞서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최근의 대한민국은 흔히 인심이 각박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시 경쟁이 심화되어 이기심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경쟁이 심화되면 인간의 욕망이 크게 부풀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만이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계층 간의 불평등을 부추기며 전체적으로 불행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의 척도가 즉 행복의 척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과도한 소비를 통해 쾌락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쾌락의 지속기간은 굉장히 짧고 최초의 쾌락은 점차 밋밋해지며 나중에는 불만, 마지막에는 또 다른 갈증으로 변화한다. 또한 힘들게 얻은 수익으로 구입한 물건이 우리를 행복

3)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프레시안』 2016년 11월 1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5939.html, (2016. 12. 11. 최종 검색).

하게 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문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결국 쾌락의 지속을 위해 과대한 소비를 하게 되는 소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돈으로 산 행복은 대체로 지속적이지 못하며 사치품은 오직 일시적으로만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다.⁴⁾ 자본주의 경제의 소비는 깊고 긴 행복감을 주지 못한 채 우리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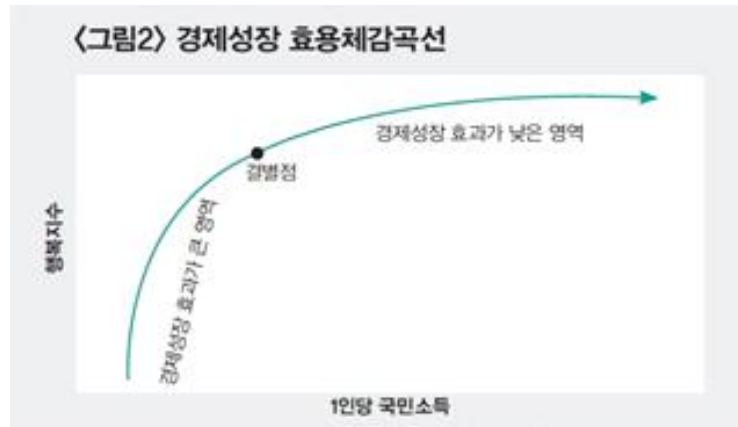
2. 경제적 번영과 행복의 실질적 연관성 분석

과연 경제적인 번영과 행복은 그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가? 경제적인 번영과 행복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이 선행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전 세계는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누리면서도 소득불평등 정도는 굉장히 낮았다. 행복이 당연시되었을 것 같은 이 시기에 행복에 대한 연구는 특히 쏟아져 나왔다. 경제발전과 행복에 대한 연구에 있어, 초기의 연구자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예상을 굳게 믿고있었다. 그러나 현실을 면밀히 관찰한 자연과학자들은 행복을 점수화한 행복지수를 만들어냈고,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변화추이를 밝혀 내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 이스털린(Easterlin)은 개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더 행복했지만 그렇다고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의 국민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이스털린(Easterlin)의 역설을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⁵⁾ 즉, 개인의 행복은 소득 순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 행복은 절대 소득 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털린(Easterlin)의 연구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생계가 보장된 후에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R. Inglehart)는 기존 여러 연구를 종합한 후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의 곡선으로 요약하였다. 결별점의 오른쪽 부분은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진다. 이 영역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국민의 행복에 큰 변화가 없는 영역으로 사실상의 행복증진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⁶⁾

4) 리처드 스코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경란 옮김, 문예출판사, 2008, 91쪽.

5) 류지아,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 '포화점'의 존재 및 사회 비교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p. 22~23.

6) 이정전, 「'행복 샘플' 말라가는 자본주의 번영」, 『한겨레 21』, 제 1110호, http://h21.hani.co.kr/arti/HERI/H_special/41718.html, (2016. 12. 11. 최종 검색).



즉 경제적 조건과 행복 간의 관계에는 포화점과 “행복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연봉 5000만원이 사람은 연봉 2000만원인 사람보다는 행복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연봉 10억원인 사람이 연봉 5억원인 사람보다 경제적 요인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뜻이다. 이 곡선의 결별점에 상응하는 1인당 국민 소득은 2000년도 초에 약 2만 달러 였다. 약 개인소득 2만달러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결별점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행복 지수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 으며 이미 “행복의 역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가구 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계층별 삶의 만족도를 도표화 한 결과, 외환위기 직후의 한국 국민의 소득 계층별 행복의 차이는 거의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⁷⁾

요약하자면 경제적인 요인과 행복은 상관관계는 가질 수 있으나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경제적 요인에 집착할수록 행복을 망칠 뿐이다. 1976년 12,000명 이상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조사한 뒤 19년 후 자신의 인생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경우가 가장 불행했다는 결과를 낳았다.⁸⁾ 돈은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불행해지기 십상이다.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목표로 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3. 행복지수가 높은 자본주의 국가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행복의 기준과 인식 비교

“행복의 역설”은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느 국가이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왜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결정하는 현상이 심화 되었을

7) 류지아, 앞의 논문, pp. 31~32.

8)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p. 214.

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계 행복지수를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U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GDP, 사회 안전망,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사회적 관용, 부패 인식 등 6가지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다. 2016년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최저 0점, 최고 10점)는 5.835점이었다.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이다. OECD 35개 회원국에서 순위를 매기면 29위로 최하위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라한 행복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⁹⁾

개개인의 행복이 넓게 퍼져있는 국가일수록 행복의 총량은 증가한다. UN의 행복보고서에서도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행복불평등이 낮은 나라 국민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일관적으로 높은 순위에 머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행복불평등지수는 개별응답자들 사이에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표준편차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며 작으면 그 반대이다. 2016년 UN 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 응답자의 행복 표준편차는 2.155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96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만 골라서 비교해보면, 평균치(1.868)보다 표준편차가 훨씬 크며, 순위를 매긴다면 행복 불평등 정도가 5번째로 높다.¹⁰⁾ 보통의 경우 행복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낮다. 이는 행복 관련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행복의 역설”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분이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¹¹⁾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원인을 세계행복지수 1위 덴마크를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덴마크의 2016년도 세계행복지수는 7.53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덴마크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사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었다. 또한 국민들은 그러한 제도 이전에 '우리는 모두 똑같다'는 평등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비교적 중산층이 많은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자신의 여유나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간다. 우리나라의 사회풍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짐에 따라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행복의 기준이 다르게 형성 된 것이다.¹²⁾

4.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의 개선 방안

9) 『세계행복보고서 2016』, UN, 2016, pp. 3~5.

10) 같은 글, pp. 10~15.

11) 김학준, 「한국의 기울어진 행복」, 『한겨레 21』 제1110호, http://h21.hani.co.kr/arti/HERI/H_special/41714.html, (2016. 12. 11. 최종 검색).

12) 말레네 뤼달, 『덴마크 사람들처럼』, 강현주 옮김, 로그인, 2015, pp. 164~167.

①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새로운 행복의 기준 필요성

이 글의 본론의 1장에서 자본주의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언급했었다. 그러한 부작용 중 하나가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이었다. 국민의 낮은 행복도와 높은 행복불평등은 빈부격차의 심화, 물질 만능주의, 경쟁의 심화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 졌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조의 개선이 시급할 것이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걷어 국민 복지에 힘을 써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행복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 구조의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라는 기준 대신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등장해야 한다.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행복은 현재와는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사실 사회구조의 문제 이전의 태도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각종 국제 행복조사들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행복불평등에는 '사회적 관계의 빈곤'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꼽는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2016)에서 '사회적 지원' 항목은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 응답자들은 72%가 '있다'고 답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88%에 이른다. 이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일상 삶에서 다른 사람과 깊은 인간적 신뢰 관계를 맺고 서로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취약하다고 나타난 것이다.¹³⁾

부탄과 같은 3세계 국민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끈끈한 인간 관계에서 안정을 느끼고 이것이 곧 행복이라 생각한다. 부탄은 절대경쟁에서 이긴다고, 더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더 행복해 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을 행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까지 삶의 점수를 매겨오던 방식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대두된다면 더 이상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현상은 개선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들에게 돈과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결론

행복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감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행복을 그저 사치, 거리가 먼 존재를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다. 행복은 전혀 사치이거나 거

13) 이민영, 「'돕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는' 그래서 불행한 한국인」, 『한겨레 21』 제 1133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37265>, (2016. 12. 11. 최종 검색).

리가 먼 존재가 아니다. 또한 행복을 그저 물질적 풍요를 충족하면 만족되 감정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는 현대인들이 행복이란 감정을 물질적인 풍요와 동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지게 된 원인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론의 1장에서는 현대인들이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행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그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2장에서는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가 동일시하는 현상에 대해 경제적 번영과 행복에는 포화점과 “행복의 역설”의 존재를 제시하여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특히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만 널리 퍼져있는가에 대해 행복지수가 높은 자본주의 국가인 덴마크와 비교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덴마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신의 삶과 여유를 더 중시하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부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를 동일시하는 현상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사회에 만연한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라는 인식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행복의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행복의 기준이 등장한다면 우리사회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좀 더 친밀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에만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가에 대해서만 비교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일어났을 법한 문제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한민국 보다 앞서 겪었던 나라도 있었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국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싶다.

[참고 문헌]

조계완. 「우린 왜 점점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한겨레 신문』, 2016년 10월 16일자.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프레시안』, 2016년 11월 1일자.

리처드 스코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문예출판사, 2008.

류지아.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 '포화점'의 존재 및 사회 비교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정전. 「'행복 샘물' 말라가는 자본주의 번영」. 『한겨레 21』, 제 1110호, 2016.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세계행복보고서 2016』. UN, 2016.

김학준. 「한국의 기울어진 행복」. 『한겨레 21』 제1110호, 2016.

말레네 튀달. 『덴마크 사람들처럼』. 로그인, 2015.

이민영. 「'돕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는' 그래서 불행한 한국인」. 『한겨레 21』 제 1133호, 2016.

요아힘 바우어.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책세상, 2015.